

# 현대전화 위치추적 신청 급증

### 잇단 강력 범죄·자살자 증가 '사회 불안' 영향 광주·전남 올 2월까지 363건...허위 신고도 늘어

최근 광주시 동부소방서 119구조대에는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가출한 딸이 '죽어버리겠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며 가족들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119 구조대원 4명이 긴급 투입돼 2시간에 걸쳐 찾아냈지만 정작 그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시내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최근 강호순 사건 등 잇단 강력범죄와 경제난으로 인한 자포자기적

'자살'이 급증하면서 119구조대에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오인 신고나 불필요한 신청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여서 소방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광주·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접수된 위치추적 서비스 신청 건수는 3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6건보다 26.9%(77건) 증가했다.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긴급상황으로 처리된 위치추적 요청은 111건(30.6%)이었다. 사례별로는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의뢰인을 찾아낸 경우가 44건(사체 발견 1건 포함), 타·시도 이철 20건, 시스템 오류로 인한 조회 불능 33건, 가족 발견 및 자체 귀가 14건 등이다.

나머지 252건은 처리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불필요한 요청이었다. 전체 신고 사례 10건 중 7건 가량은 긴급구조와는 무관한 신고였던 셈이다.

현대전화 위치추적은 사용자가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휴대폰을 5km 내외의 넓은 지역을 이틀과 인상 확인만으로 살상이 확인해야 한다. 도심의 경우 PC방 및 찜질방, 술집,

여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여수나 목포 등 해안지방은 기지국 확인이 더욱 어렵다는게 119 구조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19구조대 관계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출동을 요구해 막상 찾아내면 부부싸움 뒤 가출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신고했거나, '죽고 싶다'며 문자를 남기고 사라진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등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시·도 소방본부는 꼭 필요하고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위치추적 서비스 신청을 어렵게 할 것을 당부했다. 허위 신청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4반세기 전남교육 앵글에

### 퇴임하는 도교육청 홍보팀 이현근씨

"카메라에 담아낸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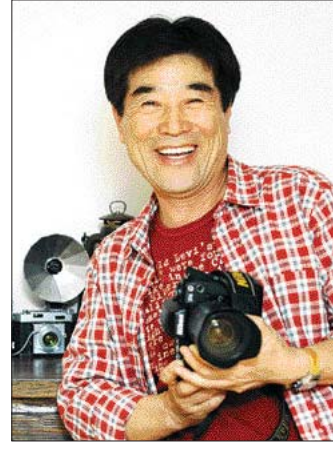
전남도교육청의 광주 매곡동 청사 시대 마감과 함께 이달 말 퇴임하는 이현근(60·도교육청 교육 홍보팀)씨는 전남교육의 산증인이다.

분청 공보실에서만 25년간 사진을 담당해온 이씨가 그동안 카메라에 담아낸 전남도 교육감만도 만·관선 모두 합해 7명에 이른다. 지난 74년 신안교육청 교육방송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씨는 1984년 분청 공보실에서 사진 업무를 맡은 뒤론 단 하루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이씨의 카메라는 전남도내 농어촌과 섬, 산골 등 학교가 있는 모든 곳을 구석구석 돌아다녔고, 교육청과 얽힌 각종 에피소드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함께 했다.

이씨는 "공보실 시절 초창기에는 카메라 셔터를 연방 눌렀다가 필름을 넣지 않은 사실을 알곤 식은 땀을 흘렸던 일 등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면서 "교육감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교육감'을 '장학사'로 호칭하거나 할 때면 내 실수인양 긴장하게 일수였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이씨는 또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농어촌 학교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고 현상소로 달려가 현상하고 인화해서 각 언론사에 돌리고 나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다"



면서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와 인터넷의 발전 때문에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됐다"고도 했다.

그와 카메라의 인연은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졌다. 구례읍에서 사진관을 운영했던 부친의 영향으로 어릴적부터 카메라를 만지며 성장했다.

이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진관 일을 돕다가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니, 반세기 가까이 카메라와 함께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3년전 기능직으로 정년했지만, 후임자 교육과 정년 교육청을 떠나기가 아쉬워 3년을 더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올해 환갑을 맞는 이씨는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해 정년 교육청을 떠나기로 했다. 그는 "이제 작풍 활동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 나원침 (7764)



### 고기잡이 50대 실종

#### 함평 고막강 수색작업

26일 밤 9시에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고막강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김모(55)씨가 실종돼 소방과 경찰당국이 이를테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119구조대와 경찰은 27일 오전부터 인원 20여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섰으나 김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 강은 폭이 20m 가량이며, 수심이 깊은 곳은 2~3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편이 평소 강물에 들어가서 투망을 쳤다"는 부인의 진술로 미뤄, 김씨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대를 집중 수색 중이다.

함평=박진표기자 pyj4079@

### 농협 조합장 선거

#### 상대 비방 20대 영장

해남경찰은 26일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해남도 농협 조합장 당선자의 아들 박모(28)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이달 초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등 300여명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 직전 'B조합장 후보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를 입수, 우편물에서 채취한 지문을 감식해 박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조합장 당선자의 가족 등에 대해 계좌추적, 자택 압수 수색 등을 통해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군복무중 21차례 절도 제재후 통

○한원혁 복무를 마치고 최근 전역한 대학생이 휴가 때마다 절도 행각을 벌여 동문으로 탄압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26일 군 복무중 휴가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21)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전역 휴가 때인 지난 10일 정오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박모(여·40)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21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은 CCTV에 찍힌 이들의 모습을 토대로 검거에 성공했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꿈이 산산조각났다"며 상처를 호소./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서구 신청사 기공 27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옛 소방본부 부지에서 열린 서구 신청사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왼쪽부터 추월명 서구노인회장, 송재선 시의원, 김성숙 시의원, 김동식 시의원, 송기진 광주은행장, 전주인 서구청장, 박광태 광주시장, 조영택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오함섭 서구의회위원장, 조재욱 서구 자문위원장, 최광중 서광회장.

위지리기자 jrwi@kwangju.co.kr

## 소록도 의료·주거시설 개선

### 전재희 장관 "병원 개축·편의시설 정비 지원 확대"

한센인 정착촌인 고흥군 소록도의 낙후된 병원과 주거시설이 정부와 기업의 지원에 힘입어 크게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35억원의 예산을 들인 국립소록도병원 재활치료병동을 이날 준공한 데 이어 추가로 40억 원을 투입, 세워진 지 70년이 넘는 병사 4개동(53세대)과 노인 전문 병동(38병상), 치료분관(110병상)을 2010년까지 개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이후 3년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한센인의 생활 시설과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재활치료병동 '소록도 행복의 집' 기공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하고 환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 장관은 기공식에 앞서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환자와 일일이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거나 얼굴을 맞대고 "건강하세요"라며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전 장관은 이어 열린 '대우조선해양 희망마을' 기공식에 참석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남상태 대우조선해

양 사장과 조대훈 유승건설 이사, 한상선 성화종합건설 사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전 장관은 기공식 뒤 "소록도병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한센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역사적인 공간인 만큼 외형은 최대한 보존하고 내부시설은 살기 좋게 꾸미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희망마을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직접 지어 소록도 한센인에게 기증한 주거 시설이다. 8세대가 살 수 있는 병사 4개동(53세대)과 노인 등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남상태 대우조선해

고흥=주각중기자 gju@

## 총장로 상가 화재 실화 혐의 2명 입건

광주동부경찰은 27일 총장로 상가 화재 당시 건물 리모델링 책임자 박모(37·경기도 시흥시)씨 등 2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30분경 광주시 동구 총장로 H의류매장 건물 외벽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건물 내부로 튀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하

는 것을 막기 위해 석면 등 차단막을 설치해야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발생한 총장로 H의류매장 등 상가 화재로 소방서 추산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30분 만에 꺼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완공 앞둔 4층 건물 기우뚱

# 인근 주민 긴급 대피

### 지반 약해...철거기로

도시 주택가에 신축중인 건물이 기울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부실시공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7시50분 광주시 동구 산수2동 산수성당 인근에 신축중인 건물 4층이 갑자기 남쪽으로 10~15도 기울면서 주택 주택 2채와 부딪혔다.

붕괴가 우려된 건물은 건축주 겸 시공자인 이모(40·광주시 서구 화정동)씨에 지난해 12월 18일 공사에 들어갔으며, 지상 4층(면적 521.46㎡) 규모로 4월 말 완공 예정이었다.

이날 사고는 공사가 모두 끝난 뒤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붕괴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인근 단독주택 13가구 주민 4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동구는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건물에 한층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있으며, 보강공사로 건물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힘든 것으로 판단, 27일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건물이 기울게 된 원인을 조사한 전남대공기기술연구소 최종중 연구원은 "현재 엔지니어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시행 참여 여부는 학부모와 학생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khh@kwangju.co.kr



기전까지 미나리광으로 사용됐다.

건축법 제40조에는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대피중인 인근 주민들은 전체 10일 가량의 철거 기간 중 위험한 철거부분이 끝나는 3~4일동안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작년 전력시설·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555억

### 72% 400억 까지 피해

까지가 지난 한 해동안 광주·전남지역 등 국내 전력시설과 농작물에 끼친 손해가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와 멧돼지, 고라니, 오리류, 꿩, 참새 등 야생동물이 전국의 전력시설과 농작물 등에 미친 피해액이 555억원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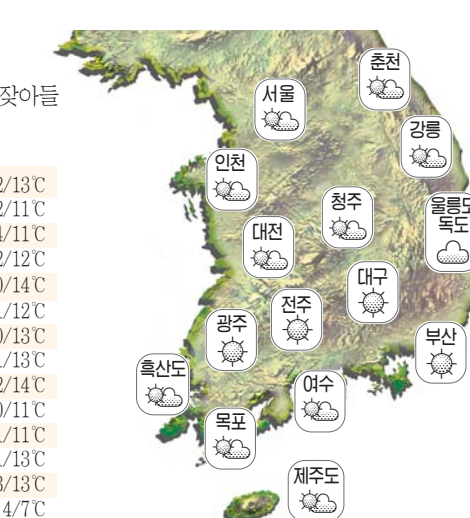
동물별 피해액은 까치가 전력시설 377억2천600만원과 농작물 20억4천700만원 등 397억7천300만원으로 전체 손해액의 72%를 차지, 다른 동물의 추종을 불허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는 전봇대까지 때문에 발생하는 정전에 따른 생산 차질과 수리비 등을 모두 합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까치 다음으로는 멧돼지 등 농작물에 55억7천800만원의 피해를 냈다.

또 오리류(34억6천300만원), 고라니(24억1천700만원), 갈매기(13억3천200만원), 청솔모(4억8천500만원), 꿩(4억6천600만원), 기러기류(1억2천200만원), 참새(5천만원)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전력시설 피해가 377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고 농작물 138억원, 양식장 22억원, 항공기 18억원 등이었다.

## 오늘 날씨



봄나들이 가세요  
꽃샘추위가 일시적으로 잦아들고 대체로 맑겠다.

광주	구름 조금	2/13°C
목포	맑은 뒤 흐림	2/11°C
여수	맑은 뒤 흐림	4/11°C
완도	맑은 뒤 흐림	2/12°C
구례	맑은 뒤 흐림	0/14°C
해남	맑은 뒤 흐림	1/12°C
장흥	맑은 뒤 흐림	0/13°C
고흥	맑은 뒤 흐림	1/13°C
순천	맑은 뒤 흐림	2/14°C
영광	구름 조금	0/11°C
진도	맑은 뒤 흐림	1/11°C
전주	구름 조금	-1/13°C
남원	구름 조금	-3/13°C
속산도	맑은 뒤 흐림	4/7°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목포 03:12	08:23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1.5m	목포 15:20	20:34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1.5m	여수 10:00	03:49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5m	여수 22:27	16:01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 국문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9(일)	30(월)	31(화)	4/1(수)	2(목)	3(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14	3/14	3/13	2/13	1/15	3/16